산업통상자원부 http://www.motie.go.kr	보도참고자료	보다 나은 정부

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	
배포일시	2019. 7. 27(토)	담당부서	동아시아FTA추진기획단
담당과장	이승헌 과장(02-2100-1373)	담 당 자	이수연 사무관(02-2100-1379)

RCEP 계기 한일 고위급 양자회의 개최

- 일본 수출규제 조치의 부당성 및 위법성을 적극 설명하고, 수출규제 조치의 즉시 철회 및 화이트리스트 국가 유지 촉구 -

□ 산업통상자원부는 중국 정저우에서 개최중인 **제27차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(이하 RCEP) 공식협상**을 계기로 7.27(토)일에 **여한구 통상교섭실장과** 일본측 경제산업성 아키히코 타무라(Akihiko Tamura), 외무성 야수히코 요시다(Yasuhiko Yoshida) 등 4명의 일측 수석대표들과 **한·일 양자회의**를 개최했다고 밝힘

* 일본은 RCEP협상에서 외무성·경산성·재무성·농무성 등 4명의 공동 수석대표(심의관급, Deputy Director General)가 참석해 왔으며, 아키히코 타무라는 경산성측 인사

** 동 회의는 RCEP 협상 차원에서 이루어진 한일 양자회의이며, 일본의 수출규제 관련 단독으로 만들어진 회의는 아님

□ RCEP 협상 계기에 이루어진 동 회의에서 여 실장은"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**국제무역규범을 훼손**하고, **역내의 무역자유화를 저해**하며, **글로벌 가치사슬 및 RCEP 역내에도 심각한 피해**를 줄 수 있으므로 **수출규제를 즉시 철회**하고, **한국을 화이트리스트 국가로 유지**할 것"을 강력히 촉구함

○ 여 실장은 아울러 수출규제조치 관련 **일본의 책임있는 고위급 관리가 조속히 동 조치 철회를 위해 한국과의 대화에 나설 것을 재차 강조**

□ 여 실장은 동 RCEP 협상 계기에 일본 외에도 **13개국과 양자회의**를 갖고, RCEP의 금년내 타결 방안을 협의하는 한편,

○ 일본의 부당한 대한 수출규제조치가 역내 무역자유화 노력에 역행할 뿐 아니라 이들 국가들도 참가하고 있는 반도체, 디스플레이 등 글로벌 가치사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데 공감대를 형성함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동아시아FTA추진기획단 이승헌 과장(☎ 02-2100-1373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